

# 한국적인 디자인으로 생명력 길러야

'선영아, 사랑해!' 아무런 일러스트레이션도 사진도 없이 그저 짧막한 글. 그 심풀하면서도 엉뚱한 포스터가 많은 호기심, 궁금증과 함께 지하철역 주변을 가득 메웠던 기억이 생생하다. 도대체 어떤 정신나간 놈이 이런 짓을 한 거야?' 불평섞인 목소리와 함께 포스터들을 떼어내던 환경미화원 아저씨의 목소리도 그 포스터와 함께 내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나 또한 그 환경 미화원 아저씨처럼 그 포스터를 한 개인의 로맨틱하고 기발한 구애 광고쯤으로만 생각했었고, 많은 길거리의 행인들은 그 포스터에서 눈을 떼지 못 하였다.

바로 얼마 후, 그 광고가 한 여성 인터넷 전문 사이트의 광고 포스터란 걸

알게 되었고, 그 광고 효과는 기대 이상의 것이었다고 들었다.

포스터는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감성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커뮤니케이션 매체중 가장 강력한 시각 전달 매체다.

## ■ 포스터의 의미와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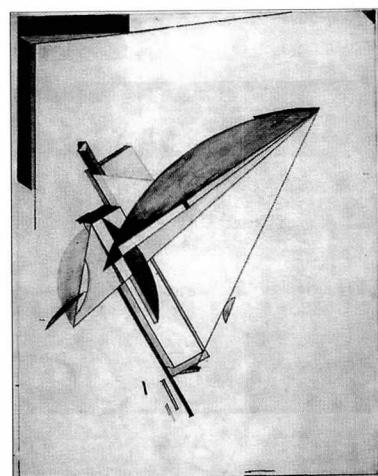
포스터(poster)는 기둥의 의미인 포스트(post)에서 유래하였는데 광고난 벽보의 대부분이 기둥에 부착되기 때문이다. 일반적 의미의 포스터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임의의 이차원 공

## 고대 이집트서 도망친 노예 체포위해 거리에 붙인 포고문이 효시

매스 미디어(mass media)의 발달로 포스터가 다른 여러 매체와 기능적인 면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 디자인적 표현양식이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데, 위의 한 인터넷 사이트의 포스터 광고는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간에 디자인적 요소를 배열해 정보나 행사 등을 알리거나 상품 광고 등을 위해 시각적 요소나 이미지를 정착시킨 것이다. 포스터를 미국과 영국은 포스터(poster), 프랑스는 아피쉬(affiche), 독일은 플라카트(plakat)라고 한다. 유럽에서는 흔히 '거리의 벽화'란 의미로, 정해진 공간의 전시가 아닌 '거리'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대상에 대한 적극적이며 보편적 제시의 장으로 대량 전달의 기능을 하는 예술의 한 형태이다.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로 다른 매체와 비교할 때 포스터는 물리적 표현 양식이나 매체가 갖는 독특한 속성과 그 소구력에서 가장 강력한 시각 전달



◆ 엘 리시초키(El Lissitzky), *Composition*, 1920 : 화가, 건축가, 그래픽 디자이너, 사진 작가 교육자인 엘 리시초키는 구성주의 포스터를 가장 훌륭하게 실현시킨 장본인이다.

매체이므로 대중의 시각적 수준이나 조형 수준을 높이는 교육적 기능과 포스터의 고유한 정보 전달 기능도 갖는다.

최근 포스터 디자인의 표현 기법은 과거의 경직된 스타일에서 탈피해 과거의 여러 사조가 동시에 출현하기도 하고, 인쇄 기술과 다양한 컴퓨터의 기능으로 순수한 기능보다는 그래픽 포스터라는 미학으로 발전하고 있다.

#### ■ 포스터 디자인의 시대적 변화

포스터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에서도 망친 노예를 체포하려는 포고문이 그 효시이다. 이후 그것은 메소포타미아의 부조간판(릴리프), 그리스의 적판 아쿠소누, 로마의 타베라 등 인쇄과

19세기 이후이다. 1966년 파리에서는 근대 포스터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J. 셰레가 자신의 공방에서 석판인쇄 포스터를 찍기 시작했고, 로트레크, 보나드 등 당대 일류 화가들이 포스터 제작에 참여, 파리 시민들을 매혹시켰다. 이들 포스터의 주제는 주로 카바레·서커스 등의 광고와 상품·서적광고 등으로 대담한 색채표현, 뛰어난 데생, 일본판화의 영향에 기인한 단순하고 신선한 구도 등으로 '포스터의 황금시대'를 맞이하였다. 한편 영국에서도 파리 못지않은 포스터 디자인의 개화기를 맞아 베거스타프 형제, D. 하디, 비어즐리 등의 작가들이 활약하였으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포스터는 바우하



◆ 알폰스 무차(Alphonse Mucha), 'La Trappistine', 포스터, 1897 : 자연의 유기적 형태에서 유래한 곡선에 장식적 가치를 주었던 전형적 아르누보 포스터.

## 상업성 포스터 16세기부터 등장 프랑스·영국서 디자인 개념 접목

정을 거치지 않은 원시적 제작수법에 의한 전기적 포스터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 후 목판인쇄 발달에 의한 최초 포스터 중의 하나가 1480년경 영국의 W. 캐스턴(William Caxton)에 의해 제작되었고, 종교주의 시대에는 교권에 의한 종교적 계습의 포고나 교령으로 발전된 형식을 보였다.

이후 르네상스를 거쳐 16세기를 통한 상업의 흥성과 함께 활판인쇄의 제품 포스터가 출현, 17~18세기에 걸쳐 번성하였고, 프랑스에서는 포스터에 대한 법령이 생겨났다.

그러나 포스터가 광고 매체로서 근대적 기능을 갖추게 된 것은 18세기의 산업혁명과 더불어 인쇄기술이 발달한

우스의 영향 아래 레터링·레이아웃 등의 근대화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하였다.

특히 근대 포스터가 선전매체로서의 구실을 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때였다. 모병·방첩 등의 포스터는 그 위력과 중요성이 사회의 큰 관심사가 되었고 전쟁이 끝난 후 상업선전분야에 널리 이용되었다. 포스터가 사회적으로 인식·평가되면서 그 제작은 종래 화가의 부업 성격에서 벗어나 전문 디자이너의 손으로 넘어갔다.

프랑스의 카상드로, 사비냑 등은 '핸드 일러스트레이션' 위주의 유머러스한 표현으로 각광을 받았고, 러시아 태생의 엘 리시츠키(El Lissitzky)에

의한 포트그램기법은 포스터의 분위기를 일신하였다. 1935년 스위스의 하버트 매터(H. Matter)가 제작한 관광국의 시리즈 포스터는 급속도로 발달한 사진술을 디자인과 조형적으로 결합시킨 걸작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히 발달한 TV·라디오 등 전파매체로 인하여 포스터의 대중전달 기능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된 듯이 보이지만, 현대 공간에 맞는 시트 포스터(sheet poster)나 트랜스페어런스 포스터(transparency poster), 슈퍼 그래픽적 포스터의 출현 등으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 ■ 포스터의 종류

포스터는 목적과 필요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적 기능에

따른 분류로는 행사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표현에서 국가의 경제성, 문화 수준과 예술성이 잘 나타나는 문화 행사 포스터, 대중을 계몽, 선도하는 목적의 사회 계몽 포스터, 소비자와 상품의 연결 수단으로 상품에 대한 구매욕을 일으킴과 동시에 판매 활동을 촉진시켜 사회의 경제 유통 질서를 원활히 하는 상품 광고 포스터, 여행자를 특정한 장소나 임의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특정한 심벌 이미지를 주어 잠재 관광객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관광 포스터, 메세지 전달이 아닌 시각적 자극을 통해 대중 심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대로의 반응을 유도하는 장식 포스터로 분류 할 수 있다.

#### ■ 한국 포스터 디자인 역사와 가야할 방향

한국 포스터의 전기적 양식은 고려 중엽부터 제작된 방(榜)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기능에 있어서는 포스터와 많은 유사점이 있다. 근대적 포스터는 국권피탈 이후 일본인의 석판인쇄술 도입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남아 있는 최초의 상품포스터로는 1925년 오프셋인쇄로 제작된 광목 선전포스터가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포스터는 전통적 테크닉 위주의 교육을 받은 화공에 의한 것이었으며, 당시 경제·사회 구조상 포스터의 이용능력이나 인식은 매우 미미한 상태였다.

한국에서 포스터가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60년대부터 전개되기 시작한 상업사회화의 물결과 때를 같이 한다. 또한 60년대 후반에는 색채

재현기술의 발달로 원색 사진포스터가 대거 등장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포스터 제작에 있어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외국의 새로운 경향을 활발히 흡수하는 가운데에도 한국의 성격을 뚜렷이 부각시키는 수준 높은 디자인의 추구이다.

언젠가 세계적인 타이포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한국의 유명 타이포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함께 하는 타이포 그래픽 디자인 전시회에 갔던 일이 있다. 각 나라의 뜻을 알 수 없는 다양한 모습의 텍스트들이 때로는 현란하면서 열정적으로, 간결하면서도 감각적으로 표현된 타이포 그래픽 포스터들을 맘껏 감상 할 수 있었다.

그 전시회를 관람하는 중에 나에게 너무나 조용하지만, 자극적이며 강렬하게 다가오던 작품들이 있었는데 그건 다름아닌 우리의 한글 텍스트를 이용한 포스터들이었다.

내 자신이 20년을 넘도록 사용해 왔던 한글이 이토록 아름답고 감각적으로, 글자 하나 하나가 디자인 요소가 되어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분 좋은 충격을 받았다. 너무도 곧게 빼어 있는 모음 획들의 선들, 엉키듯 엮여있



◆ 허버트 매터(H. Matter), 초기의 스위스 관광 포스터, 1934 : 사진술의 디자인과 조형적으로 결합시킨 걸작.

지만 그 속에서 규칙을 볼 수 있는 한글의 글자들… 나 자신에게는 한국 선배 디자이너분들이 너무도 자랑스러웠던 행복한 날이었다.

한국 디자인의 발전, 한국 포스터 디자인의 발전은 영화 '취화선'의 성공처럼,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의심치 않고, 한국적인 한국의 디자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개발한다면, 진정한 한국 디자인의 발전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추민정.. 김민경 본지객원기자  
<한경대학교 강사>

품질우선주의

TEL: (031)945-1181~4 FAX:(031)945-1185  
E-mail: selips@netgo.com

첨단 PS판 생산기술 개발로 품질을 높인  
세일 PS판의 SI 시리즈로 귀사의  
인쇄품질을 한층 높이십시오.

세일피·에스산업